

四象體質診斷設問紙의 問項 改定에 대한 研究

정용재* · 김상복* · 이수경* · 이의주* · 최선미** · 고병희* · 송일병*

Abstract

Revision of the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Jeong Yong-Jae* · Kim Sang-Bok* · Lee Soo-Kyung* · Lee Eui-Ju* · Choi Sun-Mi** · Koh Byung-Hee* · Song Il-Byung*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Background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M), human beings are classified into four constitutions: Taeyangin, Taeumin, Soyangin, and Soeumin. SCM presents various lifestyles and treatments for each constitution.

The problem of SCM is that its diagnosis is so subjective that the result of the diagnosis depends on the docto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ultiple approaches have been objectively researched. To use a questionnaire is the most common method among the different approaches. Since there are a few problems in the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 which in recent days has been used frequently, the necessity of a new questionnaire has arisen.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questionnaire for the objectivity of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by complementing the existing questionnaire.

Methods

In order to search for the existing questionnaire's problems, I first compare the ratio of the amount of questions regarding external appearance to that of questions of mental characteristics and physiologic & pathologic symptoms in QSCC II and QSCC II+. We created the new questionnaires by reinterpreting 「Dongyi Soose Bowon」 through SCM professors' and medical residents' discussion and by adding some items related to the diagnosis about the constitution from other SCM books and clinical experience.

Results

1. The new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s self-reported questionnaire based on a multiple choice system of 4 questions.
2. The new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consists of 28 questions, which include 7 questions about external appearance, 4 questions about mental characteristics, and 17 questions about physiologic & pathologic symptoms.
3. The new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consists of 24 questions of Taeyangin, 28 of Taeumin, 28 of Soyongin, 28 of Soeumin.
4. We will have to verify validity and reliability of new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신저자: 정용재 주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958-9233
E-mail) 00yu00@hanmir.com

I. 緒論

사상체질의학은 東武 李濟馬¹⁾가 1894년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여 체질 유형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특성과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양생법을 밝힌 학문이다. 사상인의 진단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저술한 사상인의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恒心, 心慾, 生理的 體質證과 病理的 體質病證에 대한 기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른 체질진단은 습득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 및 사상의학이론에 대한 숙달된 지식이 필요하며 주관적인 경향을 띠기 쉽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체형을 계측하는 방법²⁻⁴⁾, 두면부를 계측하는 방법⁵⁻⁷⁾, 생화학적인 방법⁸⁻¹⁰⁾, 유전자 분석방법¹¹⁻²¹⁾, 진단기기를 이용한 방법²²⁻²⁸⁾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심리적, 정신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런 면을 보완하여 심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設問調查紙를 이용한 체질의 진단연구가 있어왔다. 高^{29,30)} 등의 設問紙 방법이 나온 이후 金³¹⁾과 李³²⁾가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를 구성하였고 이를 보완한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33,34)}를 개발하였으며 그 후 設問調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연구³⁵⁻⁴¹⁾들이 있어왔다. 특히 김⁴²⁾·나⁴³⁾·장⁴⁴⁾ 등에 의해서 각 체질별로 유의성 있는 척도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판별식을 개발하여 각 체질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각각의 체질별로 유의하다고 제시된 문항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한 바 이를 개정된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라고 칭하고 이를 임상에서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과 『格致叢』 등에서 이에 해당되는 원문을 해석하여 QSCC II 문항을 개발하여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그 번역이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어 답변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또한 체질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들이 고루 반영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많았으며, 각 체질간의 문항비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문항수가 너무 많아서 답변자가 성실히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개정된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는 문항 수가 줄어서 대답하기 간편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 문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문항 내용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이해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였다. 특히 소음항목과 태음 항목은 그 유의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소양척도는 일부 척도가 재검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⁴⁵⁾.

따라서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과 전문의와 전공의의 토의를 거쳐 새로운 문항을 만들었기에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기존 문항의 문제점을 알기 위하여 QSCC II와 QSCC II+의 문항을 身體的 要素와 心性的 要素, 體質病證과 體質素證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율을 알아보고, 다시 각 체질별로 문항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그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QSCC II에서 QSCC II+로 재구성될 때 어떠한 요소가 유의성이 있었는지, 또 어떤 요소들이 유의성이 없었는지를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였다.

2.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의 문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1) 매주 1회씩 사상체질과 전문의와 전공의의 토의를 거쳐 기존 사상체질분류검사지의 문항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번역하였다.

2) 『東醫壽世保元』의 다른 사상의학 서적을 참조하여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였다.

참고한 사상의학 서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상체질의학회.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 권. 사상체질의학회. 2001.
- ② 김달래 역편. 동의수세보원보편(원제 보제연설). 대성의학사. 2002.
- ③ 박인상 편저. 동의사상요결. 소나무. 1997.
- ④ 홍순용 저. 사상진료보원. 서원당. 1991.
- ⑤ 김구익. 사상입해지남 : 김달래 편역. 동의수세보원 초고. 정담. 1999.
- ⑥ 이민봉 저. 금궤비방. 해동의학사. 1999.
- ⑦ 권영식. 사상방약합편. 행림서원. 1954.
- ⑧ 이태호. 동의사상진료의전. 행림출판. 1978.
- ⑨ 홍순용, 이을호.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 1973.
- ⑩ 박석연. 동의사상대전. 의도한국사. 1977.
- ⑪ 이도경 역편. 가정필비 사상요람. 원불교출판사. 1964.
- ⑫ 원지상 편저. 동의사상신편. 해동의학사. 1999.

이상과 같은 많은 사상의학 서적을 참고하였지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문항으로 개발하기에 부적합한 것도 많았다.

따라서 체질진단에 유의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부분만을 간추려 정리하였다.

3) 사상체질과 전문의의 임상 경험 중 체질진단에 유의한 항목을 추가하여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였다.

Ⅲ. 本 論

1. QSCC II와 QSCC II+의 분석

1) QSCC II와 QSCC II+의 문항비율 분석
QSCC II와 QSCC II+의 문항을 身體的 要素와 心性的 要素, 體質病證과 體質素證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QSCC II에서 문항 비율(총 121문항)

항 목	문 항 수	
身體的 要素	體形氣像	6
	容貌詞氣	2
心性的 要素	性質才幹	40
	恒心	15
	心慾	25
病症	完實無病	5
	大病	3
	病證	9
	기타	7
動機歪曲		9

표 4. QSCC II+에서의 문항비율(총 54문항)

항 목	문 항 수	
身體的 要素	體形氣像	6
	容貌詞氣	2
心性的 要素	性質才幹	19
	恒心	10
	心慾	4
病症	完實無病	2
	大病	
	病證	3
	기타	4
動機歪曲		4

2) QSCC II와 QSCC II+의 체질별 설문 항목 분포 분석

QSCC II의 문항을 체질별로 身體的 要素와 心性的 要素, 體質病證과 體質素證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표 5. QSCC II 문항비율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합계
體形氣像	6	5	6	3	20
容貌詞氣	2	2	2	2	8
性質才幹	14	11	8	7	40
恒心	9	9	5	1	24
心慾	7	5	6	5	23
病證	10	4	9	5	28
動機歪曲	3	3	3		9
총	51	39	39	24	152

표 6. QSCC II+ 문항비율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합계
體形氣像	6	4	5	3	18
容貌詞氣	2	2	2	2	8
性質才幹	9	7	5	4	25
恒心	8	3	1	1	13
心慾		2		2	4
病證	7		3	4	14
動機歪曲	3	1	1		5
총	35	19	17	16	87

이를 살펴보면 QSCCII나 QSCCII+ 모두 성질재간, 항심, 심욕을 묻는 심성적 요소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QSCCII는 121문항으로 그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심성적 요소가 80문항을 차지하여 답변자가 성실히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QSCCII에서 QSCCII+로 재구성 될 때 체형기상이나 용모사기를 묻는 신체적 요소의 유의성은 높게 나타난 반면, 성질재간, 항심, 심욕을 묻는 심성적 요소와 체질소증과 체질병증을 묻는 병증 부분의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박⁴⁶⁾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심리적 요소의 문항들이 지나치게 많은 면도 있었고, 『東醫壽世保元』이나 『格致藥』 상의 원문을 번역할 때 원할치 않은 면이 있어 답변자가 대답하기에 애매모호한 면이 많아서 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신체적 요소를 묻는 문항은 주로 4지선다형으로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으며, 심성적 요소와 병증 부분의 항목은 주로 OX 방식으로 되어있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QSCCII+에서 소음항목과 태음 항목은 그 유의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소양척도는 일부 척도가 재검증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QSCCII+ 문항비율을 살펴보면 소양인 병증항목에서 유의성이 있는 문항이 전혀 없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신체적 요소를 묻는 문항을 그대로 살리는 한편, 심리적 요소를 묻는 문항은 대폭 줄이면서 답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東醫壽世保元』의 原文을 참고하여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평소 살피기 쉬운 몸에 나타나는 체질소증과 체질병증을 묻는 문항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⁴⁷⁾을 비롯한 다른 사상의학 관련 서적과 임상 경험을 도태로 추가하여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문항응답률 차이를 줄이기 위해 주로 4지선다형으로 만들었다.

2.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의 구성

1) 기존 QSCCII 문항 개정

먼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언급한 사상인의 體形氣像, 性質材幹, 恒心, 完實無病, 大病, 特異病症, 태음인과 소음인의 구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존 QSCCII 문항을 다시 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體形氣像〉

(기존 문항)

당신의 체격은 어떻습니까?

① 체격이 큰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체격이 작은 편이다.

당신의 체형은 어떻습니까?

① 뚱뚱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마른편이다.

이상의 두 문항은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 (I)의 問項으로 유의성이 있어서 QSCCII 문항으로 채택된 것이다. 체격과 체형을 따로 물었는데 3지선다형으로 체질별 분류가 확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체질별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격과 체형을 모두 포함하여 4지선다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四象醫學原論』에서

태양인은 대체로 몸이 마른 편이다.
 소양인은 대개 몸은 비후하지 않으며, 상체가
 실하고 하체가 가볍다.
 태음인은 사상인 중에는 가장 체격이 큰 편이
 다. 골격이 굵고 키가 크며 살이 비대한 사람
 이 많다.
 소음인은 상체보다는 하체가 실하지만 실은
 위와 아래가 잘 균형이 잡혀있다. 키는 작은
 편이 보통이나 혹은 큰 자도 있다.
 라고 언급한 부분을 참고하였으며 태양인과
 소양인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에서
 太陽人 ... 性質 疏通 又有果斷 ... 少陽人 ...
 剽銳好勇 ...라고 말한 부분을 참고하여 구체
 적으로 서술하였다.

당신은 다음 중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 ① 체격이 크고 뚱뚱한 편이다. (태음인)
- ② 체격이 보통이나 민첩하게 생긴 편이다. (소양인)
- ③ 체격이 작고 마른 편이다. (소음인)
- ④ 체격이 보통이거나 작은 편이나 과단성이 있게 보인다. (태양인)

(기존 문항)

당신의 체형에서 상하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 ②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 ③ 상하체가 비슷하다.

다음 중 당신의 체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목덜미부위가 잘 발달하고 허리부위가 빈약하다.
- ② 가슴부위가 잘 발달하고 엉덩이부위가 빈약하다.
- ③ 허리부위가 잘 발달하고 목덜미부위가 빈약하다.
- ④ 엉덩이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이상의 두 문항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에서

太陽人 體形氣像 腦髓之起勢 盛壯而 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而 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而 腦髓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而 胸襟之包勢 孤弱

이라 한 것을 바탕으로 체형 중 상체와 하체 즉, 편대지장과 편소지장 부위를 묻는 문항이다. 그러나 편대지장 부위와 편소지장 부위를 동시에 물어보아 둘 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답변자가 대답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편대지장과 편소지장의 부위를 각각 물어보는 문항을 만들었다.

당신의 몸 중 주로 어느 부위가 발달하였습니까?

- ① 목덜미 부위가 발달하였다. (태양인)
- ② 가슴 부위가 발달하였다. (소양인)
- ③ 허리 부위가 발달하였다. (태음인)
- ④ 엉덩이 부위가 발달하였다. (소음인)

당신의 몸 중 주로 어느 부위가 빈약합니까?

- ① 목덜미 부위가 빈약하다. (태음인)
- ② 가슴 부위가 빈약하다. (소음인)
- ③ 허리 부위가 빈약하다. (태양인)
- ④ 엉덩이 부위가 빈약하다. (소양인)

(기존 문항)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됩니까?

- ① 골격이 굵고 살이 찐 편이다.
- ②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
- ③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

당신의 가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넓고 잘 발달되어 있다.(비만형)
- 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세장형)
- ③ 넓고 튼튼한 편이다.(근육형)
- ④ 가슴이 벌어지고 견실하다.

이상의 두 문항은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 (I)의 問項으로 유의성이 있어서 QSCCⅡ 문항으로 채택된 것이다. 골격과 체형을 묻는 문항인데 중복해서 묻는 경향이 있어 두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로 합쳐서 새로운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에서 少陰人 體形 矮短 ... 太陰人 體形 長大 ...라 하였고

또한 『金匱秘方』 「四象演義」에서 소양인은 어깨가 평평하고 가슴이 넓다. 태음인은 대부분 뚱뚱하다고 하였으며

『四象醫學原論』에서 태음인은 골격이 굵고 키가 크며 살이 비대한 사람이 많다.

소음인은 키는 작은 편이 보통이나 혹은 큰 자도 있다.

라고 한 것들을 참고하여 문항을 만들었다.

다음 중 당신의 체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비만형으로 골격이 굵고 살이 찐 편이다. (태음인)
- ② 근육형으로 골격은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 (소양인)
- ③ 세장형으로 골격이 작고 아담하다. (소음인)
- ④ 위의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容貌詞氣

(기존 문항)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걸음이 느리고 무게 있게 걷는다.
- ②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얌전하다.
- ③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
- ④ 걸음걸이가 꼳꼳하다.

위 문항은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查紙 (I) 問項의 문항으로 유의성이 있어서 QSCCⅡ 문항으로 채택된 것이다.

『四象醫學原論』에서

태양인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오래 걸지를 못한다.

소양인은 상체가 실하고 하체가 가벼워서 걸음걸이가 빠르다. 항상 먼대를 바라보면서 걷고 걸을 잘 살피지 않는다.

태음인은 상체보다 하체가 충실하므로 걸을 때는 약간 고개를 떨어뜨리고 앞을 내려다보며 배를 내밀고 발을 땅에 놓는 것이 안전성이 있어 오리걸음 같이 걷는다.

소음인은 몸이 균형이 잡혀서 걸을 때는 자연스럽고 얌전하다.

라고 하였으며

『東醫四象要訣』에서

태양인은 발이 가볍다.

소양인은 몸을 흔드는 자가 많다. 발이 가볍다.

태음인은 발이 무겁고 혹은 허리를 흔드는 자도 있다.

소음인은 조심성 있게 걷는 편이다.

라고 한 부분을 참고하여 걷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태음인의 경우 오리걸음을 걷는다 또는 허리를 흔든다고 하였으므로 하체(엉덩이)를 흔들며 걷는다고 하였으며, 소양인의 경우는 걸음을 빨리 걸으며 몸을 흔든다고 하였는데 특히 상체를 흔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태양인은 腦顛之起勢가 강하므로 태음인의 고개를 떨어뜨린다고 반대로 목을 꼳꼳하게 하고 걷는다고 표현하였다.

당신의 걷는 모습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느린 편지만 하체를 흔들며 걷기도 한다. (태음인)
- ② 자연스럽게 앞전하게 걷는다. (소음인)
- ③ 빠르게 걷고 상체를 많이 흔들다.

(소양인)

- ④ 목을 꼳꼳하게 하고 걷는다. (태양인)

(기존 문항)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
- 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
- ③ 용모가 의젓하고 격식을 차리는 편이다.
- 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위 문항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에서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

라 하여 容貌詞氣를 표현한 것을 문항으로 만든 것인데 태양인과 소양인의 容貌詞氣를 말한 문장은 따로 없어서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의

太陽人 ... 性質 疏通 又有果斷 ... 少陽人 ... 剽銳好勇 ...을 참고한 것이다.

또한 「東醫四象要訣」에서

태양인은 과단성이 있고 용과 같은 기상

소양인은 날래고 강명한 기상

태음인은 무겁고 점잖은 기상

소음인은 침착하고 단중한 기상

라고도 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카리스마적이다, 발끈하

다, 듣직하다, 다소곳하다 의 특징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추가하였다.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과단성이 있다.(카리스마적이다) (태양인)
- ②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발끈하다) (소양인)
- ③ 과묵하면서 진중한 편이다.(듣직하다) (태음인)
- ④ 온순하고 단아한 편이다.(다소곳하다) (소음인)

性質材幹

(기존 문항)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위 문항들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에서

太陽人 性質 長於疏通而 材幹 能於交遇

少陽人 性質 長於剛武而 材幹 能於事務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而 材幹 能於居處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而 材幹 能於黨與

라 하여 사상인의 성질과 재간을 표현한 것을 O, X 문항으로 만든 것이다.

이를 성질과 재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4지선다형으로 만들었다.

또한 疏通, 剛武, 成就, 端重과 交遇, 事務, 居處, 黨與의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다음 중 당신의 성질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처음 만난 사람과도 일을 쉽게 받아들여

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편이다.

(태양인)

- ② 강직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 편이다. (소양인)
- ③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처음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는 편이다.(태음인)
- ④ 치밀하여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소음인)

다음 중 당신의 재능은 주로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처음 만난 사람도 스스럼없이 쉽게 잘 사귀는 편이다. (태양인)
- ② 매사에 친소를 따지지 않고 옳은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애쓰는 편이다. (소양인)
- ③ 일상생활에서 집안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다. (태음인)
- ④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소음인)

恒 心

(기존 문항)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일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처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이 문항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에서

太陰人 恒有怯心 少陽人 恒有懼心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이라 하여 恒心(평소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것을 문항으로 만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다.

다음 중 당신이 평소에 잘 느끼는 마음은?

- ① 자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급히 서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태양인)
- ②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를 확대하여 불안하게 받아들인다. (소양인)
- ③ 갑작스럽게 대중 앞에 나서야 할 때 일순 당황스러워 주저하게 된다. (태음인)
- ④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낭패감을 느낄 때가 있다. (소음인)

다음 중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세요.

- ①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편이며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주위 의견을 듣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다. (태양인)
- ② 남에게 지기 싫어해서 말은 일에 책임감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일이 잘못되면 심각하게 확대해서 고민하는 편이다. (소양인)
- ③ 걱정되는 일에 대해 남과 상의하기보다 혼자 해결하고자 하며, 사물에 의심이 있으면 확실히 확인되어야 마음이 안정된다. (태음인)
- ④ 일을 시작할 때 치밀하게 준비하여 일을 추진하나, 불완전한 일에 대해서는 소심하게 받아들인다. (소음인)

完實無病

(기존 문항)

몸이 안 좋으면 항상 소변부터 불쾌해진다.
몸이 안 좋으면 변비가 오는 경향이 있다.
몸이 안 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 문항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에서

太陽人 小便旺多則 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 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則 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則 完實而無病

라 하여 사상인의 완실무병을 설명하였다. 이를 문항으로 만든 것인데 건강한 상태를 묻는 것보다는 나쁜 상태를 묻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워 위와 같이 만들어졌다.

태양인은 有八九日大便不通證 其病非殆證也라고도 하였으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대변의 상태를 더 보충하여 설명하였으며, 소양인은 임상 경험상 대변뿐만 아니라 소변에도 문제가 나타나므로 이를 모두 표현하였다.

다음 증상 중 당시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소변만 잘 나가면 대변을 잘 보지 못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태양인)
- ② 몸이 안 좋으면 변비가 있거나 소변이 불규칙해진다. (소양인)
- ③ 몸이 안 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태음인)
- ④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소음인)

大病

(기존 문항)

평소 건강할 때에도 자주 가슴이 두근거린다.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손발이 떨릴 때가 있다.

이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에서 太陰人 有胸膈怔忡症也 ... 少陰人 有手足惋亂證也 ...

이라 한 부분을 O, X문항으로 만든 것이다. 태양인과 소양인에 관한 부분이 없으므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之第五統」의 肺意阻則怔忡作也, 脾魄蕩則惋亂作也, 肝魂淫則恍惚作也, 腎志促則健忘作也

을 참고하여 4지선다형으로 만들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긴장되었을 때 경험하거나 느낀 증상은?

- ① 당황해서 정신이 흐려진다. (태양인)

② 불안하여 가슴 두근거리며 진땀이 난다. (태음인)

③ 일에 쫓겨 일의 순서 등을 잃어버린다. (소양인)

④ 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다.

(소음인)

特異病證

(기존 문항)

이유없이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변을 보고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을 때가 많다.

변비가 있으면 견디기 힘들다.

설사가 멎지 않으면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진다.

이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에서

太陽人 噎膈則 胃脘之上焦 散豁如風

太陰人 痢病則 小腸之中焦 窒塞如霧

少陽人 大便不通則 胸膈 必如烈火

少陰人 泄瀉不止則 臍下 必如冰冷

이라 한 것을 문항으로 만든 것인데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다음 중 당신이 느끼는 증상에 해당되는 것은?

- ① 피곤하면 입에 침이 고이거나 넘기기가 어렵고 식도 부근이 서늘한 느낌이 있다.(태양인)
- ② 신경쓰거나 긴장할 때 배꼽 주위로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생긴다. (태음인)
- ③ 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소양인)
- ④ 소화가 안 되거나 피곤하면 아랫배가 차면서 배변이 시원치 않다. (소음인)

太陰人과 少陰人 구별

(기존 문항)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
- ②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 ③ 땀을 흘려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는다.

이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에서 太陰人 虛汗則 完實也 少陰人 虛汗則 大病也 라고 표현한 것을 문항으로 만든 것이다.

태음인과 소음인의 땀의 상태에 따른 차이점을 설명한 것인데 태양인과 소양인의 땀에 대한 것이 없으므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之第五統」의 ‘太陽人... 外腎之汗... 少陽人... 肘外之汗...’ 를 참고하여 태양인과 소양인 항목을 추가하여 4지선다형으로 개정하였다.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 (태음인)
- ②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소음인)
- ③ 땀을 흘려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으며 팔뚝주위에 땀이 난다. (소양인)
- ④ 땀을 흘려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으며 생식기에 땀이 난다. (태양인)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새로운 문항 개발

東武의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사이의 저술로 추정되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함흥의 崔謙鏞이 소장하던 것을 金九翌이 手抄하여 1984년 筆寫本이 影印되었고 1985년 10월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藥研究所에서 발간한 『朝醫學』 第一冊 四象醫學論에서 부록으로 ‘四象醫學草本卷’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

었다.⁴⁸⁾

東武의 초기 의학서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중 「病變」에 四象人의 素症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原文을 참고하여 새로운 문항을 만들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중 「病變之第五統」에서

B.6.1 肺部衰則皮毛焦 脾部衰則肉理寒 肝部衰則筋脉酸 腎部衰則骨髓枯

라 하여 偏小之臟이 衰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하였다.

크게 앓거나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 비하여 쉽게 느끼는 증상은?

- ① 피부나 모발이 거칠어지고 빠지기 쉽다. (태음인)
- ② 온 몸이 추위에 민감하다. (소음인)
- ③ 근육이 저린 느낌이 있다. (태양인)
- ④ 하지(정강이)가 차고 마른다. (소양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중 「病變之第五統」에서

B.6.26 少陰之外感 鼻涕太多 太陽之外感 鼻涕太少 少陽之外感 肢節重痛 太陰之外感 肢節微痛 라 하여 외감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주로 잘 나타나는 증상은?

- ① 콧물이 많고 자주 나온다. (소음인)
- ② 콧물이 잘 나지 않는다. (태양인)
- ③ 팔다리가 심하게 아프다. (소양인)
- ④ 팔다리가 약간 아프다. (태음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중 「病變之第五統」에서

B.6.31 眼明手捷少陰之吉祥 能食安寢少陽之吉祥 肉肥汗多太陰之吉祥 肉瘦溺數太陽之吉祥
라 하여 병이 호전되는 길상을 말하였는데 이는 답변자가 느끼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반대로 쉽게 느낄 수 있는 나빠지는 상태를 물었다.

만성적으로 병이 들거나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다음 중 어떤 증상을 잘 느끼십니까?

- ① 눈이 어두워지고 손이 둔하다. (소음인)
- ② 잘 먹지 못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소양인)
- ③ 살이 빠지면서 땀이 고루 잘 나지 않는다. (태음인)
- ④ 살이 찌고 소변이 잘 안나오거나 양이 적다. (태양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중 「病變之第五統」에서

B.6.33 少陰人 腸氣虛弱則百會穴必惡風 少陽人 腸氣虛弱則膝脛必惡寒

太陰人 腸氣虛弱則肩肉必瘦 太陽人 腸氣虛弱則外腎必冷

라 하여 병증이 오래되어 심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하였다.

오래도록 병을 앓고 난 후에 느끼는 증상은?

- ① 머리 정수리에 찬바람이 들어온다. (소음인)
- ② 무릎에 찬바람이 들어온다. (소양인)
- ③ 어깨와 등의 살이 마른다. (태음인)
- ④ 아랫배나 생식기가 차다. (태양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중 「病變之第五統」에서

B.6.34 太陰之執證 若有可疑則當占于六脉之緊長 少陽之執證 若有可疑則當占於夜睡之盜汗也 少陰之執證 平居呼吸如常而有時有太息

太陽之執證 平居飲食如常而有時有就嘔逆
라 하여 사상인을 진단할 때 병증을 참고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태음인 執證은 맥을 표현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 문항으로 적합하지 않아 태음인 항목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의 ‘太陰人 有目眚上引證 又有目睛內疼證也’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다음 중 평상시에 잘 나타나는 증상은?

- ① 입이 쓰거나, 눈이 당기고 뻑뻑한 느낌이 있다. (태음인)
- ② 잠잘 때 도한(식은 땀)이 있다. (소양인)
- ③ 때때로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쉰다. (소음인)
- ④ 음식은 잘 먹는데 때때로 구역질을 한다. (태양인)

3) 기타 사상의학 관련 서적에서 새로운 문항 개발

기타 사상관련 서적으로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설문지 문항으로 만들 수 있는 항목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普濟演說, 東醫四象要訣, 四象診療保元, 四象臨海指南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문항을 만들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① 普濟演說²⁾

『普濟演說』 중 太陰人 相貌에서 ‘勞困早朝’ 少陽人 相貌에서 ‘勞困夕時’ 少陰人 相貌에서 ‘勞困午未’

*) 보제연설은 한의학연구원의 안상우에 의하여 발견된 것으로 전적으로 사상의학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사상의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기존 사상의학서적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상의학의 영향을 받은 증치의가의 저서라 생각된다.

라 하여 태음인은 아침에, 소양인은 저녁에, 소음인은 오후에 피곤하다고 설명하였다.

태양인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陽人 ... 病未至重險之前 別無大證 完若無病壯健人也’ 라 하여 병이 심하지 않을 때는 건강하다고 하였다.

다음 중 어느 때 피로를 잘 느끼십니까?

- ① 피로감을 잘 느껴서 자고 나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태음인)
- ②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서 피곤을 잘 느낀다. (소양인)
- ③ 오후에 식곤증으로 피로하기 쉽다. (소음인)
- ④ 병이 아주 심하기 전에는 별로 피로를 못 느낀다. (태양인)

② 東醫四象要訣

『東醫四象要訣』에서 피부를 말한 부분에서 소음인은 연하고 부드럽다. 태음인은 두텁고 거칠다. 소양인은 미끄럽고 얇어 보인다. 라 하였으며

『四象診療保元』에서 피부를 말한 부분에서 태음인은 피부가 거칠어서 겨울에는 손발이 트는 경우가 많다.

소양인은 살갗은 희나 윤기가 적다. 소음인은 매우 부드럽고 치밀하여 땀이 적다. 라 하였다.

태음인, 소음인의 피부는 두 서적의 언급이 일치하였으며, 소양인의 피부는 임상상 건조한 편이 많아서 『四象診療保元』을 참고하여 문항을 만들었다. 태양인은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서 ‘面色 宜白不宜黑’ 이라 한 부분에서 참고하였다.

평소 피부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피부가 건조하거나 거칠기 쉽다. (소양인)
- ② 피부가 연하고 부드럽다. (소음인)

③ 피부가 두텁고 모공이 크다.

(태음인)

④ 피부가 희나 건조하게 느껴진다.

(태양인)

③ 四象診療保元

『四象診療保元』에서 땀을 말한 부분에서

태음인 : 땀구멍이 성글어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과 가슴에서 땀이 나며 힘든 일을 할 때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사람이 많고, 찬 밥을 먹어도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

소양인 : 살갗은 희나 윤기가 적으며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다.

소음인 : 피부는 매우 부드럽고 치밀하여 땀이 적다.

라 하여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땀을 설명 하였는데

태음인은 임상 경험 상 땀이 많기는 하지만 몸이 안 좋아지면 상체에만 많이 나고 하체에는 나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문항을 만들 었고,

태양인과 소양인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 卷』 「病變之第五統」의 ‘太陽人... 外腎之汗... 少陽人... 肘外之汗...’을 참고하여 새로운 문항 을 만들었다.

땀은 주로 어떻습니까?

- ① 생식기가 차고 습하다. (태양인)
- ② 주로 머리카나 얼굴에서 많이 나고 발에는 땀이 잘 나지 않는다. (태음인)
- ③ 팔뚝바깥쪽으로 땀이 난다.(답답해서 소매 를 잘 걷어올린다.) (소양인)
- ④ 전신이 모두 땀이 적거나 잘 나지 않는다. (소음인)

④ 四象臨海指南³⁾

『四象臨海指南』에서 음성을 말한 「四聲

論」에서

태양인 : 호흡기가 크므로(器大) 소리가 높고(聲高)

태음인 : 성량이 풍부하여(量廣) 소리가 무거우며(聲重)

소양인 : 호흡기가 작으므로(器小) 소리가 가볍고 낮고(聲輕低)

소음인 : 성량이 넓으므로(局闊) 소리가 활발하다(聲發)

태양인 : 성음이 맑고 원만하고(清而圓) (商音)

태음인 : 성음이 탁하고 방정하며(濁而方) (宮音)

소양인 : 성음이 급하고 멀리가며(急而去) (徵音)

소음인 : 성음은 느리고 평안하다(緩而平) (羽音)

라고 하였으며,

신²⁶⁾의 논문에서 ‘소음인은 음성이 낮고 완만하며 조용한 편으로, 소양인은 음성이 높고 맑으며 급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으로, 태음인은 음성이 낮고 무거우며 완만하고 굵고 성량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의 평균 발음 시간에서 태양인은 다른 체질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길었다’ 라고 하였다.

당신의 목소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 ① 소리가 높고 맑으며 분명하다. (태양인)
- ② 음성이 낮고 무거우며 굵은 편이다. (태음인)
- ③ 음성이 높고 맑으며 급하게 말을 하는 편이다. (소양인)
- ④ 음성이 낮고 완만하며 조용한 편이다. (소음인)

4)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항 개발

사상체질과 전문의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體質素證에 관하여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대소변에 관하여 살펴보면

태음인은 『東醫壽世保元』 「太陰人泛論」에서는 食後痞滿 腿脚無力病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몸이 안 좋아지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비만 증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소양인에 있어서 金⁴⁹⁾등은 기존 證治醫學의 利水藥 대부분이 少陽人藥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少陽人은 水道가 불리하기 쉬운 素因을 內在한 體質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소음인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之第五統」에서 太陰少陰大小便滑利則不吉 이라 하였고,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少陰人 泄瀉不止 則臍下必如冰冷 이라고 하였으므로 소음인은 몸이 안 좋아지면 대변이 설사경향이 있거나 아랫배가 차진다고 할 수 있다.

태양인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小便旺多를 完實無病的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는 “太陽人…小便 一則宜多也 二則宜數也”라고 하였으므로 태양인은 몸이 안 좋아지면 소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이 피곤할 때 대소변은 어떻습니까?

헛배가 부르거나 더부룩하며(과민성 대장), 특히 술에 민감하다. (태음인)

피곤하거나 긴장하면 소변이 진해지거나 자주 보며 시원하지 않다. (소양인)

아랫배가 차면서 멍치거나 더부룩하고, 대변이 가늘면서 시원하지 않다. (소음인)

4.5일만에 대변을 보아도 불편하지 않으나, 소변이 진해지거나 양이 줄어든다. (태양인)

수면에 대하여 살펴보면

태양인에 있어 朴⁵⁰⁾은 평소애 淺眠 혹은 不眠이 있다고 하였다.

소양인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 사상임해지남은 김구익이 편저한 것으로 사상체질변증이론과 사상약물 및 사상방제학 등을 서술한 책이다. 김구익은 원래 의학입문 위주로 공부하여 한의사 활동을 했었으며, 1914년 만주로 넘어간 다음부터 혼자서 사상의학을 공부하였다. 이후 1936년 제자 임봉우와 함께 합홍의 최경용(동무 이재마의 제자)을 찾아가 사상의학 초본권을 필사했다.

之第五統」에서 能食安寢 少陽之吉祥이라 하였으므로 몸이 안 좋으면 잠을 편하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음인은 대범한 편이라 어디서나 잘 자는 편이고, 소음인은 소심한 편이라 잠자리가 바뀌면 잘 못자는 편이다.

수면 습관은 어떤 편입니까?

불면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

(태양인)

어디서나 잘 자는 편이다.

(태음인)

잠들기가 힘들지만 늦잠도 자지 않는 편이다.

(소양인)

잠자리가 바뀌면 잘 못잔다.

(소음인)

飲水에 대하여 살펴보면

『家庭必備 四象要覽』에서 소음인은 찬 것을 싫어하는 편이라 하였고, 소양인은 생것이나 찬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물에 있어서도 소음인은 따뜻한 물을, 소양인은 찬물을 좋아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 경험상 태음인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고, 소음인은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이다.

평소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물을 좋아해서 많이 마시는 편이다.

(태음인)

물을 거의 안 마시는 편이다.

(소음인)

물을 보통으로 마시는 편이다.

(소양인)

주로 어떤 물을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한다.

(소음인)

찬물을 좋아한다.

(소양인)

구매받지 않고 잘 마시는 편이다.

(태음인)

체중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태음인의 경우 박³¹⁾에 의하면 체중이 감소하면서 증풍의 제반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보아 체중이 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소음인은 마른 편이 많으며, 다른 체질에 비하여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소양인은 체중 변화에 민감하지 않는 편이다.

체중과 관련하여 당신은 어떤 것을 잘 느끼십니까?

특히 체중이 늘면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태음인)

체중에 관계없이 피로감을 잘 느낀다.

(소음인)

체중변동에 따른 피로감의 변화는 별로 없다.

(소양인)

IV. 考 察

QSCCⅡ나 QSCCⅡ+ 문항을 분석하면 성질재간, 향심, 심욕을 묻는 심성적 요소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체형기상이나 용모사기를 묻는 신체적 요소의 유의성은 높게 나타난 반면, 성질재간, 향심, 심욕을 묻는 심성적 요소와 체질소증과 체질병증을 묻는 병증 부분의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요소의 문항들이 지나치게 많은 면도 있었고, 『東醫壽世保元』이나 『格致叢』 상의 원문을 번역할 때 원할치 않은 면이 있어 답변자가 대답하기에 애매모호한 면이 많아서 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QSCCⅡ+에서 소음항목과 태음 항목은 그 유의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소양척도는 일부 척도가 재검증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QSCCⅡ+ 문항비율을 살펴보면 소양인 병증항목에서 유의성이 있는 문항이 전혀 없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체적 요소를 묻는 문항을 그대로 살리는 한편, 심리적 요소를 묻는 문항은 대

폭 줄이면서 답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東醫壽世保元』의 原文을 참고하여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평소 살피기 쉬운 몸에 나타나는 체질소증과 체질병증을 묻는 문항을 『東醫壽世

保元四象草本卷』을 비롯한 다른 사상의학 관련 서적과 임상 경험을 도태로 추가하여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를 구성하였다.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의 28문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의 문항분석

항목	문항수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身體的 要素	體形氣像	4	7	3	4	4	4	15
	容貌詞氣	3		3	3	3	3	12
心性的 要素	性質材幹	2	4	2	2	2	2	8
	恒心	2		2	2	2	2	8
素證 病證 要素	素證	14	17	11	14	14	14	53
	完實無病	1		1	1	1	1	4
	大病	1		1	1	1	1	4
	特異病症	1		1	1	1	1	4
총	28	28	24	28	28	28	108	

기존 사상체질분류검사지와 비교하면 性質材幹, 恒心 등을 묻는 心性的 문항은 줄고, 병증을 묻는 生理的 體質證과 病理的 體質病證의 문항, 특히 生理的 體質證인 素證을 묻는 문항을 많이 추가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QSCCⅡ+에서 소양 척도가 재검증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소양인 병증 항목을 추가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또한 체질간의 차이에 있어서도 기존 사상체질분류검사지에서 다른 체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음인 문항이 많고, 태양인 문항이 적었는데 그러한 체질간의 차이도 많이 줄었다.

V. 結 論

기존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Ⅱ)를 보완하여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를 구성하였다.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는 먼저 기존 사상체질분류검사지 중 유의성이 있는 문항을 재해석하고,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등 다

른 사상의학 서적과 임상 경험을 참고하여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체질소증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는 환자의 자기 보고식으로 4지선다형을 원칙으로 구성되었다.
2.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는 신체적 요소 7문항, 심성적 요소 4문항, 병증 요소 17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는 태양인 24문항, 태음인 28문항, 소양인 28문항, 소음인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새로운 사상체질진단검사지는 향후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임상적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서울: 여강출판사. 1986.
2. 이문호 외 1인. 사상체질유형과 체격 및 신체형태지수와의 비교연구. 사상의학회지. 1990;2(1) : 71-86.
3. 허만희 외 2인.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2;4(1):107-148.
4. 허만희 외 2인. 체간측정법에 의한 체질판별.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51-66.
5. 고병희 외 1인.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의학회지. 1996;8(1):101-186.
6. 윤종현 외 4인. 한국인 남녀 50-60대의 사상체질별 안면형태에 관한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23-131.
7. 윤종현 외 8인. 한국인 남자 30-40대와 50-60대의 사상체질별 안면형태에 관한 비교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43-152.
8. 김종원 외 2인. 사상체질과 혈중 Prostaglandin E2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7;9(2):245-261.
9. 조황성 외 1인.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생화학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7;9(2):147-62.
10. 옥윤영 외 4인. 글루타티온 S-전환효소 다형성이 뇌혈관질환 및 사상체질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123-131.
11. 조동욱 외 2인. 유전자지문법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8(2):151-64.
12. 조동욱 외 2인. Amp-FLP를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7;9(2):163-74.
13. 최승훈 외 2인. 사상체질유형과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유전자 Type (polymorphism)과의 상관관계. 사상의학회지. 1998;10(2):283-290.
14. 김민희 외 4인. 유전적 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의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169-183.
15. 하만수 외 2인. 유전자를 이용한 체질유형 감별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185-194.
16. 한성규 외 2인. HLA typing을 이용한 체질 유전자 분석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1):97-103.
17. 이수경 외 1인. 사상체질의 유전적 다형성 연구 - MTHFR의 단일염기다형성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177-181.
18. 하만수 외 2인. 사상체질과 HLA type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90-99.
19. 주종천 외 4인. 뇌경색 환자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유전자 다형성과 사상체질.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1):132-139.
20. 이수경 외 2인. 사상체질집단의 ADPRT gene 3'UTR region의 단일염기다형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90-97.
21. 김선형 외 5인. 사상체질과 아토피성 질환 유전자의 다형성(IL-4 polymorphism)에 관한 연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98-105.
22. 김정렬 외 3인. 계측기를 이용한 O-Ring Test법의 검증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5;7(1):69-102.
23. 김종원 외 2인. EAV의 측정치와 사상체질 유형 및 중풍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5;7(2):59-88.
24. 지규용 외 2인. 적외선체열촬영진단기를 이용한 체질분류와 병증진단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93;14(2):30-63.
25. 한주석 외 1인. EAV의 측정치와 병증유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5;7(1):43-68.
26. 신민란 외 1인. CSL을 통한 음향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137-157.
27. 김선형 외 3인. Laryngograph와 ECG를 이

- 용한 음향특성과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44-156.
28. 김달래. 오음의 사상의학적 음성분석과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50-59.
29. 고병희 외 1인. 사상체질변증에 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1985;6(1):40-47.
30. 고병희 외 1인. 사상체질변증방법론 연구(제2보)-대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한 사상체질분포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 대한한의학회지. 1987;8(1):146-160.
31. 김선호 외 2인. 사상체질분류검사(QSCO)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61-80.
32. 이정찬 외 3인.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81-98.
33. 김선호 외 2인.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1):186-246.
34. 이정찬 외 2인.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1):247-294.
35. 이의주 외 2인.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2):89-100.
36. 박성식 외 2인.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103-118.
37. 김영우 외 1인.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기존 설문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1999;11(2):151-184.
38. 김종열 외 2인.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 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181-214.
39. 송일병.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 연구에 대한 현황 및 전망.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1-12.
40. 박은경 외 1인. 설문지 항목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57-72.
41. 김태균 외 1인. 새로운 사상체질 설문지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73-185.
42. 김상복 외 4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少陰人 진단의 타당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94-103.
43. 나대운.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소양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44. 장현록.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태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45. 김상복 외 5인.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관한 임상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3):15-22.
46. 박혜선 외 3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35-44.
47. 사상체질의학회.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 서울: 사상체질의학회. 2001.
48. 이수경.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의 서지학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63-78.
49. 김선호, 김달래. 소변변증의 사상의학적 관점과 상한론적 관점에 대한 비교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2;4(1):185.
50. 곽창규 외 3인. 태양인 환자의 소증에 대한 증례보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3):146-152.
51. 박계수 외 3인. 태음인 증풍환자에 있어 체질치료가 체중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1):35-44.
52. 김달래 역편. 동의수세보원보편(원제 보제연설). 경기: 대성의학사. 2002.
53. 박인상 편저. 동의사상요결. 서울: 소나무. 1997.

54. 홍순용 저. 사상진료보원. 서울: 서원당. 1991.
55. 김구익. 사상임해지남 : 김달래 편역. 동의수세보원 초고. 서울: 정담. 1999.
56. 이민봉 저. 금궤비방. 서울: 해동의학사. 1999.
57. 권영식. 사상방약합편. 서울: 행림서원. 1954.
58. 이태호. 동의사상진료의전. 서울: 행림출판. 1978.
59. 홍순용, 이을호. 사상의학원론. 서울: 행림출판. 1973.
60. 박석언. 동의사상대전. 서울: 의도한국사. 1977.
61. 이도경 역편. 가정필비 사상요람. 전북: 원불교출판사. 1964.
62. 원지상 편저. 동의사상신편. 서울: 해동의학사. 1999.